

비취색 향로를 피우다, 청자 향로

강경남, 303호 청자실 18:00~18:30



그림1. 청자사자장식향로,
높이 21.2cm, 국보60호

향의 기원은 제천행사에서 장작을 태우는 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행위는 이 땅에서 좋은 정치가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하늘에 알리는 것으로, 이를 봉선封禪의식이라고 하며, 향문화의 원형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춘추좌전春秋左傳』 회공僖公 5년(기원전655)에 “일훈일유 십년상유유취(一薰一蕕 十年尚蕕有臭)”라는 기록의 주註에 “훈薰은 향초香草”라고 밝혀 동아시아에 기원전부터 향문화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향의 기능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실내의 해충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고 둘째, 의복의 냄새와 좀벌레를 예방하는 것이며 셋째, 종교의식이나 의례를 행할 때 신성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다.

고려시대 문인 이규보李奎報는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 당시 귀족 사회의 일면을 보여주는 글을 많이 남겼다. 돌술에 차를 달여 마시며 편안함을 즐기는 가운데 향로에는 향연기가 피어나는 풍경을 묘사하거나 술자리에서 침향 연기에 노래하는 목청이 메인다는 내용이 있다. 또한 박산향로에 녹색향綠桂香을 태우면서 달빛과 향 냄새에 취하여 잠드는, 차분한 분위기를 향유하는 귀족의 일과를 표현한 글을 찾아볼 수 있다.

『고려사高麗史』에는 송宋에서 사신을 보내와 침향을 선물했다는 기록과 문종 때 송나라에 요구한 약재 목록 가운데 침향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 침향이 중요한 교역품이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침향 이외에 정향, 목향, 안식향, 등 다양한 종류의 향이 고려에 유입된 사실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향을 피우기 위해서 다양한 향로香爐와 관련 도구를 만들었다.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는 각종 향로에 대해 기록되어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책에는 모두 4종류의 향로가 언급되며 용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다. 그중 도로陶爐조에 ‘산예출향狻猊出香’이 여러 그릇 가운데 가장 빼어나다고 극찬하고 있다. 비취색 청자 사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향연香煙은 어떤 모습과 냄새로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었을까?

제672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0년 1월 29일)

특별전 <인간, 물질 그리고 변형-핀란드 디자인 10 000년>(4)

백승미, 특별전시실 18:00~18:30

물건의 쓰임이 다 되었다는 것. 하나의 사물이 생활에서 함께 하다가, 어느 순간 버려지는 사물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구분할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쓰레기’의 개념은 현대적인 것입니다. 특히 열악한 기후를 가진 핀란드 사람들에게 ‘낭비’란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사물의 수명은 최대한 쓸 수 있는 데까지 연장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발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거치며, 사물은 또 다른 목적의 새로운 사물로 다시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물건 속에, 그리고 아주 쉽게 버리는 생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량생산 구조는 더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이것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환경에 대한 이러한 고민은 디자이너들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산업 디자이너인 빌레 코코넨이 개발한 이 타일은 현대 건축물에 사용하는 평범한 소재 같지만, 사실은 버려지는 폐기물로 만들어지는 재활용 타일입니다. 밀집과 식물성 재료들로 만든 크리스티나 라수스의 이 그릇은 치열한 디자인 실험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도 재활용 개념은 존재했습니다. 동물의 뼈는 헛되어 버려지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큰 뼈는 큰 뼈대로, 그리고 작은 뼈 조각까지도 유용한 송곳이 되어 사용되었으니까요. 구하기 어렵거나 귀한 재료일수록 재활용에 대한 요구는 더 당연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귀한 청동은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서지거나 할 경우 남은 조각으로 다른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핀란드의 청동도끼는 피불라로 재탄생했고, 한국 청동검의 자루부분은 끌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사물은 또 다른 사물이 되었습니다.



〈UPM 프로피〉
타일, 합성목재, 빌레 코코넨(Ville Kokkonen) 개발, 2009
©핀란드국립박물관



청동도끼와 청동 피불라,
청동, 청동기시대
©핀란드문화재청 고고유물컬렉션

제672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0년 1월 29일)

<겐지모노가타리를 그린 그림, 겐지에>

정미연, 311호 일본실 19:00~19:30

일본 헤이안시대(平安時代) 궁정(宮廷)의 모습을 묘사한 소설인 『겐지모노가타리』는 일본 문학사상 가장 중요한 고전작품이다. 『겐지모노가타리』는 창작된 후 오랜 기간에 걸쳐 일본의 다양한 예술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헤이안시대 상류 귀족층의 생활상을 현재까지 생생하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 미술사, 특히 회화분야에서 『겐지모노가타리』의 위상은 상당히 높다. 『겐지모노가타리』는 11세기 초 무렵 창작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그 내용이 그림으로 그려져 이야기[본문]와 함께 감상되기 시작했는데, 이처럼 『겐지모노가타리』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회화장르를 ‘겐지에(源氏繪)’라고 부른다.

겐지에는 에마키모노(繪卷物), 선면(扇面), 책자(冊子), 색지(色紙), 병풍(屏風) 등 다양한 매체로 그려져 감상되었다. 『겐지모노가타리』는 총 54첩의 방대한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겐지에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야기의 본문에서 어떠한 장면이 선택되어 어떠한 도상으로 그려져 왔는지가 중요시되어 왔다. 따라서 『겐지모노가타리』 54첩 중 어떠한 장면이 선택되어 어떻게 그려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옛날 일본 사람들이 해당 첩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표현하고 싶었던 장면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 매우 흥미로운 감상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림 1. 國寶 <源氏物語繪卷 夕霧>, 紙本著色, 平安時代後期 11世紀, 日本五島美術館藏



그림 2. <겐지모노가타리> 본문과 설명문

제672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0년 1월 29일)

가야본성-칼과 현의 기획과 구성

윤은식, 기획전시실 19:00~19:30

가야의 존재방식은 공존입니다. 여러 가야가 함께 어우러져 살았습니다. 1부 ‘공존’에서는 520여 년간 가야가 추구했던 공존의 흔적을 찾아봅니다. 가야의 여러 나라는 제각기 자율적인 대외관계를 유지하였고, 다양하고 개성있는 양식의 토기를 생산하였습니다. 가야 사람은 남방과 북방 등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살았으며, 다양한 문화를 누렸습니다.

2부 ‘화합’에서는 가야가 공존을 지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살펴봅니다. 가야의 여러 나라는 중앙집권화한 통합국가인 삼국에 맞서기 위해 서로 뭉쳤습니다. 5세기 후반 가락국은 낙동강과 섬진강의 여러 세력을 규합하고, 남제에 사신을 파견하여 국제적 위상을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3부 ‘힘’에서는 철의 나라 가야의 모습을 조명합니다. 공존은 힘을 갖추었을 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야의 힘은 철을 다루던 기술에서 나왔습니다. 가야가 생산한 철갑옷은 삼국에 뒤지지 않는 뛰어난 제철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한 군사력이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4부 ‘번영’에서는 4세기 전반 이전 동북아시아의 국제시장으로 번영을 누린 가락국이 왜 강자의 패권으로 가야를 통합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봅니다. 철과 여러 나라의 특산품이 모이는 당대 최고의 국제시장으로 번영을 누린 가락국의 모습은

최고 지배자의 무덤에 타임캡슐처럼 남아있습니다. 가락국은 물질적 번영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힘(무력, 이념, 경제력)을 갖춘 지배자가 있었지만, 통합한 국가의 힘에 눌려 4세기 후반 이후에는 점차 쇠약해졌습니다.



‘가야본성-칼과 현’ (2019.12.3.~2020.3.1.)